

KB금융 ‘자강불식’, 신한금융 ‘속자생존’

〈自強不息〉

〈速者生存〉

사자성어로 본 금융사 수장 새해 화두



금융사 수장들이 2018 무술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사자성어를 인용한 경영기워드와 포부를 밝혔다. 변화, 혁신, 화합을 통한 위기 극복이 핵심 골자다. 사자성어를 통해 임팩트 있는 메시지와 함께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모습이다.

자강불식-군세계 다지며 끊임없이 노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은 스스로를 군세계 다지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의 ‘자강불식(自強不息)’을 내세웠다. 국내 리딩금융그룹의 위상을 지키고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10년’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성장동력 발굴, 고객 중심 서비스 및 프로세

스 강화, 월드 클래스 인재 양성, 신속한 실행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속자생존-민첩한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은 빠르고 민첩한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속자생존(速者生存)’의 시대를 강조하며 ‘S·A·Q’를 새 경영전략으로 내걸었다.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전략방향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이는 스피드(Speed),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민첩성(Agility), 중요한 때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순발력(Quickness)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자는 의미다.

안불망위-안정 속 위태로움 잊지 않는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은 편안한 가운데서도 늘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의 ‘안



불망위(安不忘危)를 내걸었다. 지난해 지주 설립 이후 사상 최대 순익 달성, 주가 5만원대 도달, 은행 신축 본점 완성, 금융권 최초 그룹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등 많은 결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영업방식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고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금리 상승,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의 도전 본격화 등 위기를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벽비거- 벽을 깨고 날아간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벽을 깨고 날아간다는 의미의 ‘파벽비거(破壁飛去)’를 경영화두로 내놴다. 김 회장은 “기존 틀을 깨고 글로벌사

업 확대, 디지털 중심 경영, 고객자산가치 제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선도 금융그룹의 위상을 확보하자”고 했다.

중심성성-여러 뜻이 같으면 못할 일 없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은 여러 사람의 뜻이 일치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의 ‘중심성성(衆心成城)’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제과갈등과 채용비리 등으로 은행에 잡음이 일었던 만큼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것이다. 2018년 슬로건을 ‘우리를 투게더, 올 뉴 우리’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수장들의 신년사를 보면 표현 방식은 다르나 변화와 혁신, 화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전면 디자인이 바뀌고 편의 사양이 강화돼 고객층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 쌍용차

쌍용차 새해 야심작, 코란도 투리스모 봤니?

디자인 개선해 2030세대 감성 만족 장애물 감지 센서 등 편의사양 강화



쌍용자동차가 2018년 첫 신차로 미니밴 모델인 코란도 투리스모를 선보였다. 5년만에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 사양을 보강한 만큼 기아 차 카니발과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면 디자인의 변화다. 다소 투박하고 울드했던 디자인에서 탈피해 웅장함과 파워풀함을 강조한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통해 당당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LED 주간주행 등을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의 크롬라인과 연결시켜 더욱 일체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다. 전체적으로 확실한 힘이 느껴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라 20~30대 젊은 고객층의 감성까지 충분히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규 외장컬러인 아틀란틱 블루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인상을 결정 짓는 휠도 18인치 휠을 최초로 신규 적용(기존 17인치)해 측면 디자인에 엿길을 더했다.

편의 사양도 강화했다.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가 신규 적용되어 주차 편의성을 높였으며, 스마트기기 연결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이 신규 적용됐다. 애플 카플레이(Apple CarPlay)와 안드로이드(Android) 미러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Wi-Fi를 통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모든 App을 양방향으로 즐길 수 있다. ETCS(하이패스)와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ECM 룸미러를 전 트림 기본 적용했다.

경쟁 모델 중 유일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프로드는 물론 눈길과 빗길 주행에서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 경제성도 높다. 연간 자동차세는 6만 5000원(11인승 모델 기준)이며, 6인 이상 승차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2018 코란도 투리스모는 9인승 및 11인승 모델로 운영되며 판매가격(9~11인승)은 2838만~3076만원이다. 전고를 확대한 고급 모델 사토는 4036만~4069만원, 하이리무진은 5220만원(9인승 전용)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광화문역, 전국 최대 상권으로 급부상

춧불집회 등 행사 많아 연매출 1위 삼성역·선릉역·강남역 북부 ‘상위권’

지난해 서울 광화문역 인근 상권이 연매출과 인당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상권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 주요 20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광화문역은 지난 2013년 조사에선 연매출 7411억원으로 주요 상권 가운데 20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8배 이상 증가한 5조8355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2013년 전국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강남역 남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13위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은 춧불집회 등 대형 행사로 인해 소비 인구가 강북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삼성 서초사옥 인력의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이동에 따른 변화로 분석했다.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상권이 밀집한 삼성역(2위)과 선릉역(4위), 강남역 북부(5위)는 여전히 높은 연매출을 기록하며 대표 상권으로 조사됐다.

인당 월평균 매출의 경우도 390만원을 기록한 광화문역 상권이 1위를 달성했다. 2위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 인근 상권으로 연매출 규모는 7위에 불과했지만, 인당 월평균 매출은 320만원이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한 눈으로 보는 경제

3일

코스피지수	2486.35	▲	+6.70
코스닥지수	822.31	▲	+9.86
日 닛케이 지수	2만2764.94	▼	-19.04
中 상하이 종합	3369.11	▲	+20.78
국고채 금리(3년물, 연%)	2.13	▲	+0.01
환율(원·달러)	1065.50	▲	+2.00
국내금값(원/그램 g)	4만5016.20	▲	+246.04

오늘의 얼굴

푸르밀 신동환 신임 대표 선임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푸르밀은 2007년 롯데우유 분사 이후 처음으로 오너 경영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신동환 대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다. 신 대표는 1998년 롯데제과 기획실에 입사해 2008년 롯데우유 영남지역 담당 이사로 역임했다. 2016년 2월엔 푸르밀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년간 식품 식음료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푸르밀은 2018년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유제품 전문기업인만큼 품질 개발을 통한 고품질 제품으로 고객 만족과 신뢰를 충족시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 TALK TALK

- “사람중심의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3일 신임 초임연봉 4000만원(성과급 포함) 수준의 사회공단 대모멘지니어링을 새해 첫 일정으로 방문하며)
- “환율은 걱정하는 것만큼 매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가파른 것과 관련해 언급하며)
- “성공이란 엄격한 규율과 꾸준한 훈련의 결과다”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3일 경기 이천시 LG인화원을 방문해 연수 중인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500여명에게 강연하며)

데이터 경제

기업 5곳 중 4곳 “채용 시 성별 고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의 인사담당자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 채용 시 ‘일부 직무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공기업·공공기관(69.6%)에서 가장 높았다. ‘모든 직무에서 고려한다’는 대기업(31.4%)이 가장 많았다. 기업의 68.2%는 성별 외에도 채용공고에 밝히지 않은 자격요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하십니까?	
고려한다	일부 직무 고려 57.0% 모든 직무 고려 24.0%
고려하지 않는다	18.9%
● 채용공고에 없는 평가 반영 자격요건이 있다면? (복수응답)	
나이	52.0%
거주지	28.1%
전공	23.1%
학력	17.8%
자격증	17.4%
결혼여부	12.8%
외모	8.9%
어학점수	6.0%
종교	3.2%
자료제공 : 잡코리아	

편집 | 이수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오는 13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진행되는 ‘2018 해비치 이세돌(왼쪽) vs 커제 바둑대국’을 공식 후원한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 현대자동차 공식 후원

12일까지 SNS 응원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을 공식 후원한다.

오는 13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진행되는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 바둑기사의들 한 중 라이벌전이다. 해비치와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한다.

현대자동차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써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바둑팬은 물론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신형 벨로스터’와 소형 SUV ‘코나’ 등 신차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회 우승자에게 소형 SUV ‘코나’ 1대를 증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이세돌 9단이 승리할 경우 국내에서 ‘코나’를 전달하고, 커제 9단이 승리할 경우 중국 현지에서 중국형 모델인 ‘엔시노’를 증정한다.

대회 개최 전인 3~12일까지는 현대자동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SNS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해비치 2박 숙박권(1등)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신형 벨로스터’에 적용될 신기술 ‘사운드하운드’ 등을 활용해 SNS 응원 이벤트로 선정된 응원 메시지와 응원 음악을 개막식 현장에서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